

파사드 프로젝트

보수공사의 현장을 가리던 차단막이 거대한 화폭으로 다시 태어났다. 과거에 차단막은 뚜렷한 실용적 목적을 갖고 오로지 '사물'의 세계에 속했다. 그것은 어지러운 공사 현장을 공공의 시선으로부터 가리려고 설치한 물건이다. 하지만 그 막 위에 이미지를 올려놓자 그 물질적 속성 위에 의미의 층위가 얹혀지면서, 그것은 이제 시각적 환영을 투사하는 '가상'의 세계에 들어서게 된다. 파사드는 사물이 아니라 미디어가 되어 거리를 걷는 대중과 소통을 하려 한다. 대형출력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일종의 공공미술이라고 할까?

가상의 파사드는 덧없음(ephemeral) 가면이다. 그것은 잠시 어떤 것의 부재를 보충하다가 공사가 끝나면 그것은 세계로부터 철거될 것이다. 사물의 세계만이 아니라 가상의 세계로부터도. 막을 치우면 그 위의 이미지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퍼포먼스나 설치예술이 후에 자료로만 그 흔적을 남기듯이, 가상의 파사드는 사진으로만 영속성을 얻는다. 한성필은 가상의 덧없음을 미적으로 구제한다. 앓제가 사라져가는 파리의 낡은 구조물을 구원했다면, 그가 구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잠시 그것을 둘러싼 가면이다. 그는 껍데기의 피상성을 긍정한다.

어떻게 보면 유형학적 작업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스름 빛 속에 잠긴 영상에서는 기록의 분류학적 냉정함이 아니라 외려 풍경화와 같은 분위기의 아득함이 느껴진다. 여기서 복제의 피상성은 묘하게도 원본의 아우라와 결합한다. 그 분위기는 해뜰 녘 혹은 해질 녘의 진짜 빛과 인공조명이라는 가짜 빛을 의도적으로 섞어놓은 데서 나온다. 그의 작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른바 '미디어 파사드'다. 하지만 거기에 사용된 것은 대형 LED화면이나 그 밖에 스스로 빛을 내는 뉴미디어가 아니라, 회화와 사진이라는 고색창연한 올드 미디어다. 사진과 회화는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에 그의 파사드는 자연광과 인공광이 뒤섞인 어스름 속에서 분위기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사진의 기록을 통해 사라져가는 것을 구제하는 것이 그의 주요한 관심사는 아니다. 그의 눈은 다른 데에 가 있다. 한성필은 복제를 복제함으로써 '재현'을 주제화하려 한다. 복제의 복제는 실물과 가상의 차이를 흐려 버린다. 각각 현실과 가상의 차이도 인화지 위에서는 똑같은 가상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몇몇 작품에서는 현실의 건물과 가상의 이미지가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굳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작품 속의 가상은 그 뒤에 가려진 실물 못지않게 분위기를 갖고 있다. 진짜 빛과 가짜 빛이 경계선 없이 뒤섞이듯이, 그의 화면에서 가상과 현실은 경계선 없이 어지럽게 뒤엉킨다.

가상의 파사드는 존재론적으로 묘한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의 그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들어설 것의 그림이기도 하다. 그것은 앞서 존재했던

원본의 복제일 뿐 아니라 동시에 앞으로 존재하게 될 건물의 원형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그것은 과거의 복제이자 미래의 기획이다. 앞과 뒤를 동시에 보는 야누스처럼, 그것은 과거를 돌이켜 재현을 하고 미래를 향하여 현시를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의미의 놀이가 발생한다. 사진가는 뷰파인더를 통해 앞으로 실현해야 할 이미지를 탐색한다. 뷰파인더는 사진가가 미래를 향해 이미지들을 던지는 실험적 탐색의 도구다. 미래의 기획이라는 면에서 가상의 파사드 역시 일종의 뷰파인더다. 한성필은 그 건축의 뷰파인더를 다시 사진의 뷰파인더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촬영’을 주제화한다. 그는 과거를 향해 복제를 복제할 뿐 아니라 동시에 미래를 향해 기획을 기획하고 있다.

그가 찍은 파사드 중에는 복제나 기획이 아닌 것도 있다. 가령 트롱프뢰이유 (trompe-l'œil)를 이용한 것이 그것이다. 이때 가상의 파사드는 이미 있었던 것의 부재를 대리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도 거기에 있지 않을 완전히 새로운 환타지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물론 거리를 지나는 현실의 관찰자에게 이 환영의 가상성은 비교적 뚜렷하게 의식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다시 사진으로 복제하면,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져 사진 속의 이미지는 일종의 버추얼 리얼리티가 된다.

가상의 파사드는 대체 왜 나타난 것일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먼저 다다와 팝아트, 공공예술과 설치예술은 차단막이라는 일상의 사물이 대중을 위한 공공의 설치예술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건물의 벽에서 난데없이 허구의 영상을 보는 체험은 이미 건물에 설치한 대형 스크린 위로 영상의 홍수가 흐르는 이 시대의 일상이기도 하다. 게다가 오늘날은 원본과 복제의 경계가 흐려지고, 가상과 현실이 뒤섞이고, 시간의 선형성이 무너져 재현이 동시에 기획이 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처럼 최근에 거리에 나타난 가상의 파사드들 속에는 이 시대의 기술적 조건, 문화적 기억, 세계-인간 존재의 변화가 은밀히 집약되어 있다. 한성필이 파사드에 주목한 것은 바로 그 냄새를 맡았기 때문일 게다. ‘파사드 프로젝트’는 내게 벤야민의 ‘파사주(아케이드) 프로젝트’를 연상시킨다. 30년대에 벤야민이 파리의 아케이드에서 20세기를 읽은 것처럼 그의 <파사드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21세기가 꾸는 꿈을 해독할 수 있지 않을까?

진중권(미학, 중앙대 겸임교수)

Façade project

The screen hiding the field of repair work is reborn again as a vast painting. It belonged to the world of entirely ‘things’ for obvious practical design in the past. It is the object shielding the disorderly field of construction work from public gaze. But when we put image on the screen, the layer of meaning is placed on the material predicate and the

object enters into the virtual world projecting optical illusion. A façade becomes not a thing but media and attempts to make itself understood by the masses walking along the street. May it be a kind of public art which comes from the development of the large-sized printing technique?

The virtual façade is an ephemeral mask. It fills the absence of something temporarily and shall be removed not only from the world of things but also from the virtual world after construction. When a screen is removed, the image on it cannot but vanish. As the performances and the installation leaves a trace as materials afterwards, so the virtual façade is guaranteed for perpetuity only by means of photograph. Han Sungpil saves the ephemerality of virtuality aesthetically. While Eugene Atget delivered the obsolete structures of Paris, Han Sungpil saved not the building itself but the mask wrapping a building briefly. He acknowledges the superficiality of shell.

In a sense, Han Sungpil's work seems to be typological. But rather the farawayness like an atmosphere in a landscape than taxonomic cold-heartedness of record is felt in the image immersed in the dusk. The superficiality of the copy combined with the original aura strangely at this point. The atmosphere comes from the intentional blending of the real light at dawn and dusk and the false light, that is, artificial illumination. It is a so called 'media façade' that we watch from his work. But neither large LED screen nor new media illuminating by itself but an archaic old media, namely picture and photograph was used in his work. Because photograph and picture can not give out light by itself, his façade is capable of having an atmosphere in the dusk of blending natural and artificial light.

It is not his primary concerns to save the disappearing thing through the record of photograph though. His eyes are on the other concerns. Han Sungpil has representation as his subject by duplicating a duplicate. To duplicate the duplicate blurs the distinctions between the actual and virtual object. Reality and virtuality hold the same virtual position on the printing paper. Thus, actual building is hardly distinguished from virtual image in his some works. Though reality and virtuality can be discerned, the virtuality in the work has an atmosphere more than real object hid by the image. As the natural and artificial light is mixed up without borders, so virtuality and reality get entangled on his picture without borders.

A virtual façade has the strange doubleness ontologically. It is the picture existed on that spot and at the same time it is the picture which will exist there. It is not only a duplicate of

precedently existed original but also the archetype of subsequently existing building. In a word, it is the duplicate of the past and the plan of the future. As Janus who looks in opposite directions, it restores the past and represents it and unfolds the future. Here comes from the interesting game of the meaning. The viewfinder is an experimental exploring tool which the photographic artist cast the images toward the future. In the aspects of planning the future, the virtual façade is also a kind of viewfinder. Han Sungpil has 'photography' as his subject consequently by placing the viewfinder of building on the viewfinder of the photograph again. He not only duplicates a duplicate toward the past and also plans the plan toward the future concurrently.

There is neither duplicate nor plan among Han's picture of facades. For example, it is a using trompe-l'oeil. At this point, the virtual façade does not replace the absence of already existed but create a completely new fantasy world which neither exists and nor will exist there afterward. The visionary virtuality will be comparatively clearly recognized by the observer passing on the street in the actual life. But when it will be duplicated as a photograph again, the boundary of virtuality and reality is blurred and the image in the picture becomes a kind of virtual reality.

Why does the virtual façade appear? There may be some reasons. Firstly, Dada, pop art, public art and installation provide a condition that daily thing like screen can be considered as the public installation for the masses. The experience of watching the virtual image on the wall of building unexpectedly is the daily life in this era that the flood of the image flow over the large screen set up on the building. Furthermore, today is the era that the boundary of original and duplicate is blurred, virtuality and reality are mixed up, and the lineage of time collapses and the representation becomes the plan concurrently, isn't it?

In this way, technical condition, cultural memory and the transformation of world and human being are condensed in the virtual façade recently appeared on the street. The reason why the Han Sungpil pays attention to the façades is he smelled the very scent. The 'façade project' reminds me of Walter Benjamin's *Passengen (Arcade)-Werk*. As Benjamin read the 20th century in the Arcade of Paris in the Thirties, isn't it possible for us to encode the dream of 21th century in Han's <façade project>?

Chin, Jungkwon(Aesthetics, Adjunct professor of Chung-Ang University)